

사무 이양하고 예산은 ‘모르쇠’

중앙사무 이양 불구 예산지원은 3년째 중단
정부, 3단계까지 1705건·예산 300억원 지원
4단계 이후 지원 스톱... 관련 법개정도 표류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중앙사무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3단계 제도개선 이후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4537건의 중앙사무를 이양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중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단계까지 이양

된 중앙사무 1705건 이양에 따른 예산 300억원을 지원했다. 300억원 중 280억원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MICE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자됐고, 25억원은 별빛누리공원 전시관 사업에 집행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 중앙사무 권한 이양에 따른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다. 지난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용역 결과 4단계 중앙사무 2134건 이양에 따른 소요예산은 9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출신 강창일 국회의원이 같은 해 8월 중앙정부 권한 제주도 이양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에서는 제주도에 내려준 것을 사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한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량이 늘었지만 중앙부처는 업무가 줄어든게 없다고 한다. 또 국가예산을 지방으로 넘겨주게 되면 부처의 동의가 필요한데 중앙부처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같이 지방분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할 것이 있으면 하기로 했다"면서 "중앙사무 권한 이양에 따른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제26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이 5일 오후 3시 한라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도1동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한라환경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각 부문의 수상자들이 시상식 직후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의 환경가치 키우는데 앞장”

어제 본사 회의실에서 26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
이도1동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환경대상 ‘영예’

환경보전의 생활화 및 맑고 푸른 제주를 가꾸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사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제26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이 5일 오후 3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대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도 교육청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제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차상 상임의장 등 각계 인사를 비롯 수상자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상식에선 한라환경대상 부문과 한라환경UCC공모전, 한라환경퀴즈대회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관련기사 7면 김대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보존은 땅과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조화에 있다”며 “인간만이 유일하고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조화로운 지구가 되지 못한다”고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라환경대상 시상식이 제주환경과 모든 생명체의 조화로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

다”고 덧붙였다. 김용구 한라일보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라환경대상을 통해 26년 동안 100여명의 환경지킴이를 배출했다”며 “환경보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제주 환경의 가치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라환경대상에 선정된 이도1동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활발한 환경보전 활동을 해온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음은 수상자 및 단체 >한라환경대상=이도1동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한라환경실천상 >최우수=임정림(세화고 교사) >우수=푸른바이크셰어링 >한라환경지킴이 최우수상 >교사부문=이대혁(이리광초) >학생 중·고등부문=양현서(중앙여고)·문소윤(브랜슘을 아시야) >한라환경UCC공모전 >최우수상 일반 및 대학 부문=이종민 >초등부=강시후·김태건(이상 하귀초) >한라환경퀴즈대회 >대상=현기욱 >최우수상=정현덕 >우수상=오창욱.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제주국립묘지 조성 사업 ‘훈풍’

1만기 안장 규모 묘지 조성사업 오는 9월 착공
계획 수립 7년 만에 분개도... 예산 563억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1년까지 제주국립묘지를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제주지역 보존단체 숙원 해결에 훈풍이 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곁에 계시는 때 국가유공자 할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해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다”며 제주국립묘지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립묘지 계획은 2012년 9월 국가보훈처와 제주도간 국립묘지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됐다. 그동안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와 사

유지 매입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관련 계획들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진입로인 제주시 노형동 산 17-9번지 12만2000㎡ 규모의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같은해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이후 올해 초 국립묘지 조성사업 지구 산지전용 허가신청, 실시계획 인가·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추진 동력이 생겼다. 제주도는 오는 2021년까지 예산 563억원(국비 526억원·지방비 37억원)을 확보·투입해 오는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장 규모는 1만기다. 그동안 6·25 참전 유공자와 월남참전 유공자는 단순 참전유공자로 분류되면서 상이

군경 유공자들이 잠들어 있는 충혼묘지 안장이 불가능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통해 도내 참전유공자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인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부지 확보와 단계간 이견 등의 문제로 정체된 상태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부지를 잠정 확정했지만, 보존단체 간 이견으로 후보지 검토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부지매입비도 확보되지 않아 적극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중앙부처 설득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보훈청 관계자는 “국립묘지 조성을 통해 양지공원이나 개인묘지에 안장된 참전유공자 1000여명을 모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훈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신차·중고차 구입은
제주은행 자동차대출**

우대금리 이벤트 진행중 (~8월 31일까지)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주말 10:00~18:00 / 2019.05.29~2019.08.31

제주은행
문의 : 1588-0079(7번)

Lets Run PARK JEJU
릿즈런파크 제주

제25회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기 전도유도대회

일시: 2019. 6. 9(일) 10:00~(개회식 11:00)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관(외도동 소재)
체급
 -개인전 : 유치부, 남녀초등부, 남녀중등부, 남녀고등부, 남녀일반부
 -단체전 : 초등부, 남녀중등부, 남녀고등부, 사설체육관부

주최 및 주관: LetsRun 한국마사회의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릿즈런파크 제주는 매년 1,000여 명의 지방세를 제주도에 납부하고 있으며 1,30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